

박형룡 신학에서 교회의 본질- 삼위일체론적 교회론에 관한 연구

방 선 영(산본교회, Th.D.)

I. 서론

‘삼위일체론적 교회’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성령의 전 또는 피조물로서 교회’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에서 보는 교회의 개념이다. 서술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아들은 교회를 모으시고, 성령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¹⁴⁰⁾는 말로 간략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교회사 속에서 꾸준히 표현되어 온 개념이었다. 최근 일원론적인 ‘그리스도의 교회론’과 ‘성령론적 교회론’을 극복하고자 하는 주장이 나왔다. 이신건에 의하면 이 두 교회론을 극복하고 상호보완적인 교회론으로 나아가는 길은 삼위일체론적 교회론으로 나아갈 때라고 한다.

교회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지시하는 손가락, 그 전위대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오고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표징적으로 드러내는 그 나라의 성례전이 되어야 한다 ... 성령의 피조물(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갖는 경직성, 폐쇄성, 기구성, 제도성, 교권주의화를 견제하고, 성도들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 개념의 세속화를 억제하고 저지한다.¹⁴¹⁾

신문철도 ‘삼위일체론적 교회론’에서 21세기 한국교회가 위계적이고 종속적인 교회관을 버리고 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한다.¹⁴²⁾ 이러한 균형잡힌 교회 개념을 우리는 박형룡에서도 보게 된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1조를 5회에 걸쳐 인용하여 성부의 선택의 관점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140) 최윤배, “칼빈의 교회론 - 교회의 본질을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제 8호 (2006년 가을 겨울 호): 8-43.

141) 이신건, “삼위일체론적 코이노니아 교회론”, 『한국기독교 신학 논총』 제 10집 (1993): 190-214.

142) 신문철 “삼위일체론적 교회론”, 『성경과 신학』 제 29권 (2001): 97-124.

몸으로서 교회를 강조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 교회 신앙고백』 제 16장을 의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⁴³⁾

우리들이 한 하나님, 즉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을 믿는 것처럼 한 교회가 처음부터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한 교회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의 무리요, 집단인 바, 이들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며 영접한다.¹⁴⁴⁾

교회는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전’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신적 원수로 갖는 성령의 전인 것이다. 이러한 박형룡의 삼위일체론적 교회 이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II. 본 론

1.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박형룡에게 교회를 정의한다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된다.¹⁴⁵⁾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효과적인 부름이 따르고, 선택된 백성들의 효과적인 부름은 세례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즉 ‘피택자들의 전수로 구성되’는 것이 교회요, ‘교회란 선택된 사람들의 무리요, 집단’인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교회는 누구이며,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는가? 묻는다면 한

143) 스코틀랜드 신앙고백(1560): 교황주의에 대한 배격과 예배의 순수성 및 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기수 John Knox에 의해 작성된 고백서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7): 단순한 예배의식, 장로교 교회정치 및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에 의하여 영국의 민족교회를 이룩하고자 열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작성된 전통적인 개혁신학에 입각한 신앙고백서임을 밝힌다.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 25장: 교회에 관하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가시적(不可視的)인 보편적(catholic) 교회는 택정함을 받은 자의 총수(universus numerus praedestinatorum)로 되어 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하나의 모임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엡1:10, 22, 23, 5:23, 27, 32, 골 1:18).”

144) 朴亨龍, 『朴亨龍 博士著作全集 VI』, 『敎義神學 / 敎會論』, 서울: 改革主義信行協會, 2006, 30.

145) 朴亨龍, 『敎義神學 敎會論』, 30-32.

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측면으로 답하게 된다. 즉 ① 선택의 관점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 ② 효과적 소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자들의 무리' (*ceotus electorum vocatorum*),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단체' (*ceotus fidelium*) ③ 세례와 고백의 관점에서 '세례받고 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 ④ 정치체제의 관점으로 정의되는 교회다.

그러나 그에게 마지막 정치체제 관점의 교회 정의는 비판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146) 왜냐하면 이것은 전자들과 달리 위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인간 중심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로마 가톨릭교회 교회관과 같이 한 개인 중심에 의해서도, 침례교의 교회관과 같이 개 교회 중심에 의하여도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사회적, 정치적 연맹이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며, '그리스도의 신앙'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의 인위적이고 자발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로 형성되는 집단이요, 자연적 혈통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공동체이다. 즉 하나님에 의해 세계 인류로부터 부름받은 피택자들로 구성된 "엑클레시아"인 것이다. 147)

박형룡에게 이러한 하나님에 의한 선택론적 교회개념은 성경적 명칭의 고찰에서도 나타난다. 148) 그에게 구약의 '카할' (**קהל**)이 '하나님의 총회'로 신약의 '에클레시아'는 인류 세계에서 불러낸 피택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지시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교회의 설립이 개인의 결단과 믿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성이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인의 믿음을 가능케 하고 그로인해 교회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형룡에게 선택론적 교회는 '현재 지상의 교회'를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현대의 경험적인 실재'의 교회에만 적용되지도 않는다. 149) 하나님의 '선택'은 제한된 선택이 아니라 모든 인종적, 민족적, 국가적, 지역적, 성적 그리고 시간적 제한을 넘고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에 있을 성도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택함 받은 자들 뿐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들까지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 교회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이며, 지역을 넘어 전체 교회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형룡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종말론적' 이

146) 박형룡, 『教義神學 教會論』, 32.

147) 박형룡, 『教義神學 教會論』, 18.

148) 박형룡, 『教義神學 教會論』, 17-22.

149) 박형룡, 『教義神學 教會論』, 30.

며 '보편적 교회'에 적용된다.

또한 '현재 지상의 교회'를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함은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교회는 그 구성요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것, 하나님에 의해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러한 일들은 육안으로 식별하거나 결정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영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택'과 효과적인 소명의 관점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적용이라고 한다.¹⁵⁰⁾ 따라서 박형룡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종말론'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의 약속"¹⁵¹⁾의 공동체로서 보편교회로의 적용이다.

바빙크에게서 이와같은 박형룡의 관점의 교회를 보게 된다.¹⁵²⁾ 그는 유기적 조직체를 창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선택하시고 공동체로 두신다고 한다. "즉 하나님의 위대성을 선포하고 그 이마에 그분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거듭난 인류의 구속이요 갱생이요 영화"¹⁵³⁾로 인도하실 목적으로 인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 곧 그리스도의 몸과 신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때 선택의 범위는 모든 세대들, 방언들, 민족과 나라들로 온 무리가 해당되며, 그 방법으로 '오직 은혜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선택은 개인적인 반면 그 언약은 개인뿐 아니라 그 가정과 세대를 동시에 포함한다고 바빙크는 말한다. 그러므로 그에게 '선택론' 관점의 교회는 박형룡과 같이 보편교회에 적용이요, 종말론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2. 그리스도의 몸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개념은 사도 바울에 의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그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지체' (고전 6:15)로 보는 데서 나온 것이다. 유승원에 의하면 이것은 교회에 대한 서술에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신자들에 대한 개념과 집합적이고 총괄적인 인격으로서 그리스도 개념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의 집단으로 본다는 것이

150) 朴亨龍, 『敎義神學 敎會論』, 42-43.

151) 김근진, 『기독교 조직신학』 IV,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73.

152) Herman Bavinck, *Magnalia Dei*, 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500.

153) Herman Bavinck, 『하나님의 큰일』, 500.

다.¹⁵⁴⁾

이와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개념이 박형룡에게 먼저 교회의 명칭에서 나타나고, 다음으로 교회의 다양한 구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체’,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칭한다. 이것은 3세기 교부들을 따른 것으로 교부들에게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건축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불리었다.¹⁵⁵⁾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여 자신의 지체인 신자들과 영적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을 지키며,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순결은 ‘교리적 순수성’으로¹⁵⁶⁾ 박형룡은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교의학자로서 그리고 그 당시 교회에 경계해야 할 신학적 위험으로부터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엡 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를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보편교회에 적용하고, 골 1: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를 단일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다.¹⁵⁷⁾ 또한 롬 12:5과 엡 4:25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신체로서 교회에 중요한 신도들의 영적 연합(靈的 聯合)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따르는 의무는 ‘도덕적 의무’와 ‘성결의 의무’ 두 가지로 고전 6: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구절을 성경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¹⁵⁸⁾

다음으로 교회의 다양한 구별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 개념은 조직체로서 교회에 대한 본질적 교회의 강조이다.¹⁵⁹⁾ 박형룡은 교회가 조직체로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조직의 목적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조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154) 유승원, “그레고-로마 세계의 몸 메타포를 통해서 본 그리스도의 몸 개념에 대한 이해”, 『신약논단』(2000, 7): 149-66.

155) Jay, E. G. 주재용 역, 『教會論의 歷史』(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0): 42-43.

156) 朴亨龍, 『敎義神學 教會論』, 20-21.

157) 朴亨龍, 『敎義神學 教會論』, 20.

158) 롬 12: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엡 4: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고전 6:15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59) 朴亨龍, 『敎義神學 教會論』, 48.

아니다. 조직체로서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를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교회를 세워가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조직체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은혜의 시행을 위해 사명을 맡기셨을 뿐이다. 그러므로 조직체로서 교회는 사명이 없다할지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교회의 내용물을 담기 위한 도구로서 조직일 뿐이다. 따라서 박형룡은 ‘그리스도의 몸’ 개념의 본질적인 교회는 개혁교회의 입장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25장 1조)도 명시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박형룡에게 교회가 “성도의 교통”(communio sanctorum)으로서 ‘그리스도의 몸’ 개념이 있다.¹⁶⁰⁾ ‘성도의 교통’의 근거는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한 몸을 이룬 교회는 한 몸임에도 서로 구분되는 지체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형룡은 개혁파의 “성도의 교통”(communio sanctorum)에 반대하여 외면적 조직에 치우친 로마 가톨릭교회와 헬라 정교회의 교회관을 반박한다.¹⁶¹⁾ 그들은 그리스도 교회라고 주장하는 기독교 공동체와 맞닥뜨렸을 때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새롭게 고찰하면서 종교개혁에 맞서기 위하여 트렌트 공회(公會)와 제1 바티칸 공회(1870)와 제2 바티칸 공회를 거쳐 교회를 성도의 사귀이 아니라 제도적 기구(制度的機構) 혹은 교직기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회가 “세례를 받고 동일한 교리에 신앙을 공언하고 동일 성례에 참여하며 한 사람의 유형적 원수 즉 교황 아래 있는 합법적 목자들의 치리를 받는 모든 신실자들의 집단”¹⁶²⁾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용하는 ‘교회’의 명칭은 다분히 ‘유형적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교회의 조직 즉 교직 중심의 교회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박형룡은 그들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속성들의 분참자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로마 가톨릭교회는「교훈하는 교회」와「신앙하는 교회」혹은「치리, 교훈, 건덕하는 자들로서 구성된 교회」와「교훈, 치리, 성례를 받는 교회」를 구별하여 교회를 두 층으로 나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교훈받는 교회」(ecclesia audiens)가 아니라, 「교훈하는 교회」(ecclesia docens)이다.¹⁶³⁾

160) 朴亨龍, 『敎義神學 敎會論』, 35.

161) 朴亨龍, 『敎義神學 敎會論』, 33.

162) 朴亨龍, 『敎義神學 敎會論』, 33.

163) 朴亨龍, 『敎義神學 敎會論』, 33.

따라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회관은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구원을 중재하는 매개체(媒介體)로서 이 매개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현존하시고 자신의 공동체를 다스리게 된다. 그들에게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신하고, 교회에 대한 복종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박형룡은 교회를 교회가 신자들 위에 있는 제도적 기구가 아니라 서로 구분되지만 한 몸을 이루는 내면적 영적 집단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 본다.¹⁶⁴⁾ 이런 맥락에서 한스 쾅(Hans K?ng)도 로마 가톨릭교회관을 거부하며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제도적 교회가 아니라 '성도' '제자' '형제'로 불리는 단일한 공동체로 말한다.¹⁶⁵⁾ 즉 아우구스티누스의 '성도의 사귄' (*communio sanctorum*)인 것이다.¹⁶⁶⁾

또한 박형룡은 본질상 교회를 '성도의 집단'이 아니라 사도적 계승인 감독들이라고 주장하는 헬라 정교회의 교회관을 비판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강조한다.¹⁶⁷⁾ 그들에게 로마 가톨릭교회처럼 대주교의 수위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감독의 무오성에 근거한 교회의 무오성과 회의 및 대회들의 무오성이 주장된다고 한다. 그들의 신학자 가빈(Gavin)에서도 교회는 인식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무형한 그(교회)는 신적 은사들과 능력들을 가진 자니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형시킴에 종사한다. 유형한 그(교회)는 공통한 신앙을 공헌하며 공통한 풍속을 실행하며 유형한 은혜의 방편을 사람들로 구성된다. ... 판연한 조직체들로 형성되어 교회들로 자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다양 단체들을 부분적이며 미완성한 체현(體現)들로 가지는 무형적 이상적 교회관념을 배척한다. 교회는 현실적이며 촉감할 수 있으며 볼 수 있는 실체요, 인식되지 않는 또는 인식될 수 없는 이상이 아니다.¹⁶⁸⁾

이와 같이 헬라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직 중심의 교회관을 참교회로 주장하지만 박형룡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교인들과 교회의 평등함이 주장된다는 것이다. 김균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하여 은사와 기능이 있어 차등이 있을 수 있으나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특별한 성직자 계급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다며 박형룡과 견해를 같이 한다.¹⁶⁹⁾

164) 朴亨龍, 『敎義神學 敎會論』, 35.

165) Hans K?ng, *Was ist Kirche?*, 이홍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서울: 분도출판사, 2003), 87.

166) Jay, 『敎會論의 歷史』, 112.

167) 朴亨龍, 『敎義神學 敎會論』, 34.

168) 朴亨龍, 『敎義神學 敎會論』, 33.

169)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IV, 92.

따라서 박형룡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支教會인 동시에 普遍教會가 된다.¹⁷⁰⁾ 지 교회는 그 자체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보편교회인 것이다.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는 만유의 머리가 되신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형룡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편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안에 존재하고 시대의 과정에서만 실현되는 교회로 시간 속에서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택함받은 자들로 구성된다. 결국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통일(統一)이라는 교회의 통일성(統一性)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면적으로 영적 통일을 이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생기를 얻는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에 동참하고 동일한 사랑의 끈으로 묶이어 동일한 장래 희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박형룡이 통일성을 말할 때는 언제나 획일적인 단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교회의 통일성은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의미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상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¹⁷¹⁾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외면적인 보이는 교회가 다시한번 강조된다.¹⁷²⁾ 왜냐하면 비록 보이는 교회 역시 '성도의 교통'으로서 그 구성원에 있어 아직 미완성인 상태로써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반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신자들만 포함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의 교회일지라도 그 영적 충전소는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적 원수로 한 영적 통일체를 형성한다. 이것은 한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생기를 받으며, 한 신앙을 공언하며, 한 소망을 분참하며, 한 왕을 섬긴다. 이것은 진리의 위성이며, 신자들에게 모든 영적 행복을 전달함에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신체로서 구속의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로 목적한다.¹⁷³⁾

170) 朴亨龍, 『敎義神學 教會論』, 48.

171) 고린도 전서 12장 12-13절

172) 朴亨龍, 『敎義神學 教會論』, 35.

173) 朴亨龍, 『敎義神學 教會論』, 33.

이처럼 박형룡에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모두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그에게 유기체로서 교회에 우선성을 두게 된다.¹⁷⁴⁾ 박형룡은 보이는 교회를 유기체인 동시에 조직체라고 구별하면서 교회의 조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기적 생명을 담는 도구로 간주한다. 조직체는 생명적 존재의 유기체가 나타나는 방식으로서 영적 생명의 공급원은 될 수가 없으며, 그 자체에 권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즉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조직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밝혔다. 그에게 유기체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우선 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교회의 바른 정치와 권징의 시행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규례들이 정치와 권징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고되는 곳에는, 교회의 조직과 정치가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의 규례들에 응답하여야 된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거룩한 의무는 그 자체를 순결하게 오염(汚染)없이 지킴이라는 강하고 확고한 신념이 움직인다. 이 신념의 실천적 효과는 교회의 건전(健全)이 그것의 은혜의 조직체로서의 사명을 수행함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아서도 극히 필요하다. 교회가 만일 퇴보하여 타락하면 이 사명의 수행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의 회원을 수납함에 신중하며 필요한 때에는 권징에 엄정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신성이 손상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언약이 불경되어 그의 진노가 전 회중에게 임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므로 ...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였다(고전11:30)".¹⁷⁵⁾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규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은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¹⁷⁶⁾ 결국 박형룡에게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의 개념은 '교회의 목적'을 이끌어 주며 '교회의 구조'도 형성해 주는 본질이 되고 있다. 박형룡에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개념은 「教會論」의 근거가 되어 「教會論」의 주제마다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성령의 전

다음으로 교회는 '성령의 展'이다. 박형룡에게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모임이

174) 朴亨龍, 『敎義神學 教會論』, 49.

175) 朴亨龍, 『敎義神學 教會論』, 49.

176) 朴亨龍, 『敎義神學 教會論』, 49.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곳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현존하시어 역사하시는 곳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교회를 '성령의 전'이라고 지칭한다.¹⁷⁷⁾ 박형룡은 신·구약적 교회의 칭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신약 속의 교회의 특수성에 의해 붙여진 칭호로 '성령의 전'이라 부른다. 즉 믿음으로 드리는 전 예배자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왜냐하면 고전 3:16; 엡 2:21,22; 벧전 2:5을 주석할 때 보편적 교회로서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집'이며, *ἱερόν*(성전)에서 헬라어 *ἱερόν*(성전)의 어근 *ἱερόν*는 보이는 교회의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거주처'가 되기 때문이다.¹⁷⁸⁾

그는 또한 교회의 성령의 전으로서 거룩한 교회를 아우그스티누스의 유비로 설명하며 교회와 성령의 관계는 마치 영혼과 인간의 몸의 관계로 비유한다. 곧 성령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영혼이 각 몸의 모든 지체 속에서 활동하듯이 성령은 교회 전체 속에서 활동하신다. 성령의 활동과 함께 교회 안에 살아있는 신자는 '성도(聖徒)가 되는 것이다.¹⁷⁹⁾ 따라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단체"¹⁸⁰⁾인 것이다. 그는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논하므로 교의 신학에서 성령론을 약화시키지 않고 있는데, 자신의 교회론 제 2장 3절을 전체(5페이지)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단체'로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박형룡에 대한 성령론이 약하다는 평가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게『救援論』다음에『教會論』이 위치하는 것도 聖靈論이 매개체가 된다. '구원론'이 개인 종교생활에 대한 성령의 활동이라면, '교회론'은 교회단체 종교생활에 대한 성령의 활동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이다.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개인의 종교생활에 대한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논술한다. 교회론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교회와 단체적 종교생활을 지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묘사한다.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복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교회를 구성하며 그들의 개인적 종교생활이 교회의 단체적 종교생활에 연결되어 건전 또 원만한 발전을 본다.¹⁸¹⁾

그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성령 안에서

177) 朴亨龍, 『教義神學 教會論』, 21.

178) 朴亨龍, 『教義神學 教會論』, 21.

179) Augustin, Sermon 267, 朴亨龍, 『教義神學 教會論』, 48, 재인용.

180) 朴亨龍, 『教義神學 教會論』, 37.

181) 朴亨龍, 『教義神學 教會論』, 15.

교회 안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가며,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그 역사가 영구히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²⁾ 우리 역시 교회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엡 2:21, 22)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교회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박형룡은 성령의 '전능의 사역'과 '조명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⁸³⁾

먼저, 성령께서 전능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한다. 성령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뿐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핏박 중에 부지하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며, 단합되게 하시고, 순수성을 유지하시며, 지도자를 임명하고 사도들의 기도와 상징적 행위인 안수에 응답하시어 새 회심자들에게 임하시고, 교회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역시 성령이시다.¹⁸⁴⁾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불신자들을 향한 선교활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자신을 알리시고, 미숙한 교회들에 지도자들을 세우신다.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힘을 주시어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은사들을 부여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¹⁸⁵⁾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하나님께 사용될 도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전'이 세워져 가도록 자신을 맡기는 것뿐이다. 역사상 만대의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령의 사역을 도르너(Dorner)의 교회관을 인용하여 박형룡은 다시한번 확인하고 있다.

그는 그의 교회에 교리에 세 가지를 포함시켜 ①성령의 새출생 즉 증생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창시, ②은혜의 방편에서 성령의 계속적 공작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성장과 견인(堅忍), ③교회의 완성이라 하겠다. 즉 교회는 성령의 사역으로 시작되고 자라나고 계속하고 완성되는 것이다.¹⁸⁶⁾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여 교회를 교회되도록 세워가는 것이다. 박형룡은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를 강조하면서 오늘날 죄인

182) 朴亨龍, 『敎義神學 敎會論』, 37. 엡 2:21, 22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3) 朴亨龍, 『敎義神學 敎會論』, 37.

184) 朴亨龍, 『敎義神學 敎會論』, 37-39.

185) 빌 3:3; 고전 14:15, 엡 4:3; 빌 2:1, 고전 12:4-11.

186) A. H Strong, Systematic Theology (New Jersey: Old Tappan, 1974) 893: "Dorner

이 변화되고 새사람으로 되는 기독교 교회의 성공의 비밀은 바로 복음의 진리와 함께 성령의 권능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¹⁸⁷⁾ 그런데 박형룡은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사들은 인정하면서, '은사 중지론'을 주장하므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는 반대한다. 그는 사도시대의 기사와 이적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그 시대에 한 한 것으로 기적, 병고침, 방언, 예언, 환상등과 같은 특별한 은사는 오늘날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⁸⁸⁾ 그가 '교회의 직권'을 논하면서 사도의 3대 특별 권능을 영감에 의한 진리 교훈 및 성경 기록, 이적 행사, 사람들로 하여금 인수하여 성령받게 하는 일이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오늘날 더 이상 사도들과 같은 성령의 은사는 주어지지 않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 같다.¹⁸⁹⁾

그러나 오늘날 '은사 중지론'이 한국 교회에 절대적으로 주장되는 것만은 아니다. 김동수도 은사는 사도성의 표시로서 기적은 사도들에게 한정된 것이며, 다른 것은 후대의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성경적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신약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된 곳이 없으며, 바울 역시 성령의 은사 중 계시적인 성격의 은사를 따로 분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¹⁹⁰⁾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 하에 있었던 박형룡이 '은사 중지론'에 대한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¹⁹¹⁾

또한 박형룡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례 과중주의'(聖禮過重主義)의 제도적 교회관을 비판한다. 그들이 표준문서에서 중생과 성화의 동력인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있지만, 정작 성례론에서는 배제한다는 것이다. 성례 자체가 내재적?

includes under his doctrine of the church: (1) the genesis of the church through the new birth of the Spirit, or Regeneration; (2) the growth and persistence of the church through the continuous operation of the Spirit in the means of grace, or Ecclesiology proper, as others call it; (3) the completion of the church, or Eschatology."

187) 박형룡, 『박형룡 박사著作全集-說教 ③』, 41.

188) 박형룡, 『敎義神學 教會論』, 38.

189) 박형룡, 『敎義神學 教會論』, 135.

190) 김동수,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서울: 이레서원, 2008), 147-148.

191) 한국 선교 초기 1909년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며, 평양신학교에서 강의했던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은 모두 39명 정도로 북장로교 산하의 두 미국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출신으로 분류한다. 그 중에서 프린스턴 출신이 6명이고 다음으로 맥코믹 출신이 11명이었다. 그런데 프린스턴이나 맥코믹은 모두 북장로교 소속 신학교들로서 Warfield의 신학적 영향권 속에 있었다. Warfield는 치유 기적이거나 초자연적 은사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도임을 보여주는 표지이며 그들의 사도적 설교의 진정성과 권위를 논증해주는 증거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사라지고 그들의 사역이 끝난 이후에 기적과 초자연적 은사들이 사라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평양신학교 교수진의 다수를 형성하는 맥코믹 신학교 출신 미국 선교사들은 부흥운동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카고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자연히 Moody와 같은 부흥사들에 의해 주도된 영적 환경에 익숙했으면서도 그들의 신학적 교육은 부흥운동이 가져온 영적 분위기와는 상관 없이 Warfield의 신학적 영향권 속에 놓여 있었으며 한국 장로교 총회 헌법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장로교회는 미국의 부흥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영향을 받아 원산을 시작해서 부흥운동의

객관적인 힘을 가진 구원의 은혜의 전달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황과 같이 '성령의 역사'의 자리에 '성령'이 자리한다. 그들에게 성령은 은혜의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은혜의 전달자인 것이다.

한편 교회는 스스로 주어진 진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으나 성령의 조명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교회답게 된다. 이것은 박형룡에게 “성경의 무오성”, “교회의 무오성”, 성경의 “사적 해석의 권리”와 관련된다.¹⁹²⁾ 성경의 무오성이란 사도들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은 특별계시를 올바르게 기록할 수 있는 ‘영감’과 ‘계시’를 주었다는 것이고, 성경의 사적 해석권이란 교회지도자들과 신자들에게 성령의 조명을 통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영(요 16:13)을 개인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주셔서 구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의 수호자로서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된 것이다. 즉 각 개인에게 성령에 의한 성경 해석권이 주어지고, 그 신조들은 교회를 통하여 주어졌다.¹⁹³⁾ 그러므로 박형룡은 성경의 완전 영감설과 성경 해석에 있어 ‘보편적 제사격(普遍的祭司格)’을 주장하면서¹⁹⁴⁾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으로 말미암은 성경의 무오성, 교회의 무오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다워지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단체’인 것이다. 결국 박형룡에게 ‘삼위일체론적 교회’라고 직접적인 서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론 전반부에 걸쳐 들여다 볼 때 교회를 삼위일체론적 교회 이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그에게 ‘삼위일체론적 교회’라는 직접적인 표현이나 깊은 사고에 대하여 제기되기도 하지만 교회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단’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교회를 말하므로 그가 교회에 대하여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본다.

이러한 삼위일체론적 교회 이해는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Calvin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 보존되는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한다.¹⁹⁵⁾ 칼빈은 교회를 정의함에 있어 선택의 교리에 초점을 두고 자신의 첫 작품인 1536년 기독교 강요에서 끝작품인 1559년판 기독교

큰 물살을 타기 시작했으면서도 치유 기적과 초자연적 은사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말씀만 강조하는 이중적 전통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한수, “신약의 전망에서 평가한 은사증지문” 참조)

192) 朴亨龍, 『敎義神學 敎會論』, 39-41.

193) 朴亨龍, 『敎義神學 敎會論』, 39.

194) 朴亨龍, 『敎義神學 敎會論』, 40-41.

195) Otto Weber,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 (서울: 이레서원, 2001), 50.

강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택을 교회론의 테두리 안에서 말한다. 교회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아버지께 의한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 속에 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확증을 갖게 된다.¹⁹⁶⁾ 교회의 일원이 된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의 몸으로 자라간다.

따라서 박형룡의 교회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본질적 개념이 칼빈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 몸 안에서 지체가 된 성도들의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¹⁹⁷⁾

교회는 가톨릭적 혹은 보편적이라고 말해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고전1:13) -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 교회도 둘이나 셋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으므로(엡1:22-23), 한 머리에 의존하며 그들은 또한 몸의 지체들처럼 연합되고 결합되어 한 몸을 형성한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¹⁹⁸⁾

칼빈은 바울이 말한 에베소서 4:15, 16절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성도들의 단체인 교회와 그 모임의 주가 되시는 관계를 '몸과 머리'라는 개념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통일적인 한 기구가 나타난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우리는 각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되시는 그에게 유착되어서 우리들 사이에는 통일이 이루어진다."¹⁹⁹⁾ 그러므로 칼빈에게 있어 교회의 통일성은 영적인 통일로 그 근거는 그리스도가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이 온 성도의 공동체라는 사상이 교회가 신도의 어머니라는 견해와 필수적으로 결부됨을 보게 된다.²⁰⁰⁾ 이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통'이다.²⁰¹⁾ 칼빈은 사둘레토에게 쓴 글에서 "나는 항상 행동으로 내가 얼마나 일치를 갈망하는지 증거해 왔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했다.²⁰²⁾ 칼빈에 의하면, 사도신경이 말하는 '가톨릭'

196)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454.

197) 현요한, "갈방의 교회론", (미간행 신학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86), 16.

198) *Inst.*, IV i 2.

199) 이종성, 『칼빈』(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7), 138.

200) Wilhelm Niesel, *Theologie Calvins*, 이종성역, 『칼빈의 신학』, 187.

201) *Inst.*, IV i 4. 13.

202) W. J. Busma, *Calvin*, 이양호·박종숙 역, 『칼빈』(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3), 504.

(*Catholic*)은 주로 '범세계적인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복음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분과 하나이다. 만약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고 접붙임을 받은 다른 모든 신자들도 하나이다.²⁰³⁾ 이렇게 '성도의 교통'을 전제로 소집된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교회인 것이다.²⁰⁴⁾

성도의 교통에 있어서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들 각자는 전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특수 은사를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이나 재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²⁰⁵⁾ 생의 외부적인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육신상의 궁핍까지도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 칼빈은 영적이고도 내적(內的) 연합뿐만 아니라, 외적(外的) 연합도 강조한다.

이것은 칼빈이 계층구조적인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의 전횡을 염두에 둔 것으로 성도들이 상호 의존케 함으로써 파괴적인 주권행사를 제거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하의 질서가 존속하려는 것이다.²⁰⁶⁾ 칼빈에게 있어 교회의 개념이 그리스도 몸으로서의 개념이요, 성도의 교통을 말하지만, 여기서 성도의 교통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민주적 교제 제도를 통한 교통이다. 칼빈은 루터를 따라 모든 신자제사장직(*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을 받아들여주는 했지만, 루터와는 달리 교역자의 위치를 확보하였다.²⁰⁷⁾ "하나님께서는 하늘 교리를 전파 하라고 목자들에게 명령하셨다 ... 그리고 무한히 귀한 보물을 질그릇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또 이 질서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제정하신 곳에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²⁰⁸⁾

결국 칼빈의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개념은 선택되고, 연합되어 교통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가 된다.²⁰⁹⁾

203) T. H. L. Paker,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희석 옮김, 『칼빈 신학의 입문』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183.

204) *Inst.*, IV i 3.

205) *Inst.*, IV i 3.

206)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188.

207) 현요한, "갈방의 교회론" 18.

208) *Inst.*, IV i 5.

209)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187.

또한 칼빈에게 교회는 '성령의 전'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에게 성령은 교회 안에서 내적·외적 증거가 수반되는데,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말씀과 구별되는 성례전과 권징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통해 역사하신다. 모든 교회의 사역은 성령에 의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교회의 진리가 되신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형성되었으며, 그로인해 그 권위가 주어진다.

그것의 권위를 주장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 '이라고 그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선지자들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서 그들이 하늘에서 선언하도록 위임받은 것만 발설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를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짓는 것이다.²¹⁰⁾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간섭이 아니면 목사에 의해 선포된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효력을 발생되지 않는다. 성례전이 그 효력을 발생되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어야 한다. 성례전에 있어서 말씀은 설교에 의해 해석되어진 말씀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 말씀과 성례가 우리의 마음에 조명될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성령의 빛이 비추어질 때인 것이다.²¹¹⁾ 헨드리스 벌콕(*H. Berkhof*)는 성령은 교회의 제도, 공동체 뿐 아니라 그리스도 주변의 넓은 영역까지 역사하심을 말한다. 그는 성경은 성령께서 교회의 외적 활동, 사역 및 조직체에 이르러 역사하는데 하등의 장애가 없으며, 공동체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된다.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시는 도구로서 말씀, 성례, 그리고 목회사역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공동체에 임하신다고 한다.²¹²⁾ 이런 면에서 김균진의 교회에서의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천년 전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과거의 일로 화석화되었을 것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더해 준다.²¹³⁾ 그러므로 박형룡의 삼위일체론적 교회는 칼빈의 삼위일체론적 교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본다.

210) John Calvin, *The Calvin Commentary* 20, 신복운·이종성·한철하 역, 『칼빈성경주석』20, (서울: 성서원, 2003), 593.

211) *Inst.*, IV. xiv. 4-8.

212) Hendrikus Berkhof, *The Doctrine of The Holy Spirit*, 황승룡 역, 『성령론』(서울: 성광문화사, 1996), 66-101.

213) 김균진, 『기독교 조직신학』IV, 22.

III. 요약 및 평가

박형룡의 교회론의 본질을 논하였다. 박형룡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삼위일체론적 교회가 된다고 하였다. 그에게 교회는 삼위일체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된다. 이러한 것을 교회의 성경적 명칭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구별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며 따라서 그에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그리스도에 의해 양육되며, 성령 하나님에 의해 성화된다고 하였다. 그는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 25장 1조를 5회에 걸쳐 인용하면서 선택의 관점에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강조하므로 종말론적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의 약속의 공동체로서 보편교회에 적용한다. 또한 그에게 교회는 성령의 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교회에 현존하시며 역사하시는 곳이다. 따라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전능의 사역과 조명의 사역으로 역사하시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신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박형룡의 「교회론」은 본질적으로 정통신학 노선을 따르는 개혁신학이었다. 그는 삼위일체론적 교회를 논하면서 종교개혁자 칼빈, C. 핫지, 바빙크, A. 카이퍼의 신학 입장을 같이하는가 하면, 성경에 근거한 교회론을 전개하므로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우선으로 하므로 본질적으로 개혁파 정통주의 교회론을 제시한 것이다.

주제어(Key Word)

박형룡(H.-Y. Park), 교회론(ecclesiology), 삼위일체적(Trinitarian), 한국신학자(Korean theologian)

참고 문헌

1. 박형룡의 1차 문헌

_____. 『박형룡 박사著作全集 II』教義神學 / 神論. 서울: 改革主義信行協會, 2002.

_____. 『박형룡 박사著作全集 VI』教義神學 / 教會論. 서울: 改革主義信行協會, 2006.

_____. 『박형룡 박사著作全集 XVIII』說教②. 서울: 改革主義信行協會, 1988.

_____. 『박형룡 박사著作全集 XVIII』說教③. 서울: 改革主義信行協會, 1988.

2. 박형룡의 2차 문헌

김길성. “박형룡 박사의 신학에 대한 이해와 평가”. 『신학지남』통권 제281호 (2004년 겨울호): 100-117.

3. 기타 자료

1) 외국 서적

Berkhof, L.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81.

Buswell, J. Oliver. *A Systematic Theology of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II*. John T. McNeill Ed. John Knox Press, 1975.

2) 번역 서적

- Hodge, A. A. *Outlines of Theology*. 고영민 역. 『성례론 - 복음주의 신학』4권. 서울: 기독교교문사, 1991.
- Bavinck, Herman. *Magnalia Dei*. 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권수경·이상원 역. 『조직신학 상·하』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 Berkouwer, G. C. *The Church*, 나용화·이승구 역. 『개혁주의 교회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양낙홍 역. 『기독교강요』(1536).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 _____. *The Calvin Commentary 20*, 신복윤·이종성·한철하 역. 『칼빈성경주석』20, 서울: 성서원, 2003.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이종성의 3인 공역. 『기독교강요』(1559).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_____. *The Calvin Commentary*. 존 칼빈 성경주석출판위원회 편역. 『공 판복음주석』서울: 성서원, 2003.
- Busma, W. J. *Calvin*, 이양호·박종숙 역. 『칼빈』서울: 도서출판 나단, 1993.
- Heppe, Heinrich. *Reformierte Dogmatik*. 이정석 역. 『개혁파 정통 교의학』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 Jay, E. G. *The Church*. 주재용 역. 『教會論의 歷史』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2000.
- Küng, Hans. *Was Ist Kirche?* 이흥근 역. 『교회란 무엇인가』경북: 분도출판사, 2003.
- Niesel, Wilhelm. *Theologie Calvins*,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1973.
- Paker, T. H. L. *Calvin: an Introduction to His Thought*, 박희석 옮김. 『칼빈 신학의 입문』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1.
- Weber, Otto. *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김영재 역. 『칼빈의 교회관』서울: 이레서원, 2001.

3) 동양 서적 및 논문

- 김군진. 『기독교 조직신학』IV,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9.
- 김동수. 『방언은 고귀한 하늘의 언어』서울: 이레서원, 2008.

- 이종성. 『칼빈』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7.
- 신문철. “삼위일체론적 교회론”. 『성경과 신학』 제29권 (2001).
- 이신건. “삼위일체론적 코이노니아 교회론”, 『한국기독교 신학 논총』 제10집 (1993).
- 최운배. “칼빈의 교회론 - 교회의 본질을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 제8호 (2006년 가을 겨울호).
- 최홍석. 『교회론-자기 피로사신 교회』 서울: 솔로몬, 1998.
- _____. “우찌무라 간조의 교회이해”. 『신학지남』 통권 제260호 (1999년 가을호)
- _____. “카이퍼의 교회본질 이해”. 『신학지남』 통권 제209호 (1986년 가을호): 40-58.
- 이양호.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교회론”. 미간행 Th. D. 논문, 연세대학 신학대학교, 1984.
- 유승원. “그레코-로마 세계의 몸 메타포를 통해서 본 그리스도의 몸 개념에 대한 이해”, 『신약논단』 (2000, 7).
- 현요한. “갈뱅의 교회론”, 미간행 신학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1986.

ABSTRACT

**A Study on Trinitarianism Ecclesiology essentially of
Juk-San Hyung-Ryong Park by Sun-Young Bang.**

The ecclesiology of Hyung-Ryong Park is Trinitarianism Ecclesiology essentially. The church reveals in the name of church, various discrimination and character of church as selected people's group, body of Christ and Holy spirit. The church is selected by God, raised by Christ and it is become holy by holy spirit. As he quotes 5 times in Westminster Confession provision¹ on chapter 25 and emphasizes church by selected view and by body of Christ. It should become ordinary church which is Ecclesiological and community of accomplished promise onto Christ.